

나는 지금 정거장에 앉아서 글을 쓴다. 신민경이 내게 보낸 글을 읽으면서 지하철역 1호선의 사람들을 떠올린다. 정거장에서는 움직이는 열차에 탄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은 가만히 멈춰서 움직이는 땅을 밟고 있다. 땅은 옆으로 움직인다. 땅은 언제부터 이동했을까?

신민경의 Traffic(2021) 시리즈는 그가 지하철 1호선에서 마주친 사람들을 기억에 의존하여 도자 조형토로 구현해낸 사물이다. <서 있는 사람>, <핸드폰 보는 사람>, <다리 벌린 앉아있는 사람>, <멍한 사람>, <나가려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조는 사람>, <꾸벅이는 사람> 등, 사물에 새겨진 형상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익숙하게 지나쳐왔던 풍경을 마주한다. 이 작품들은 신민경 개인이 경험한 사건, 기억의 적층과 그 재현 불가능함에 대한 하나의 도식이다. 게다가 그가 작업물을 소성<sup>1)</sup>하지 않고 전시한다는 점은 미세하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하나의 층을 더한다.

이 작품들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 아래에서 퍼낸 “지반의 일부”를 작품의 재료로 삼는다. 이 작은 땅덩어리들은 때때로 희고 단정한 모양의 조각이 되어 전 세계의 테이블과 찬장으로 이동한다. 오래전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조각들은 일찍이 영국인들과 유럽인들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으며,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땅의 조각들은 하나의 층을 이루어 이 행성의 위를 이동해왔다. 마치 맨틀처럼.

신민경의 설명에 따르자면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코일링 방식은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의 몸에 쌓이는 기억의 저장 과정과 유사하다. 더불어 작품들은 모두 1차 소성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습기와 건조에 취약하다. 이는 형태의 온전함이나 지속성을 내려놓고, 끊임없는 취약함과 변형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작업 과정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작품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윤리적으로)올바른 감상’으로 바꾸어낸다는 점에서 과하게 마술적이다. 나는 오히려 그가 작품을 굽지 않는 이유에 대해 “냄새”를 이야기했다는 점이 자꾸만 신경 쓰인다. 냄새는 이 흙덩이들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표시한다. 또한, 냄새는 전시 중에도 벌레와 같은 소동물을 끌어들이고, 이 흙덩이들이 버섯과 같은 균류와 친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것은 전 세계의 대지가 끊임없이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 즉 ‘글로벌 밸류 체인’의 시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속내를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유백색의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보이는 본차이나<sup>2)</sup>의 태생에는 죽은 동물의 뼈와 살, 대지에서 끌어올린 흙과 노동이 있다. 때때로 이러한 요소들은 위대하기보다는 취약하고 추한 극복의 대상으로 느껴진다. 1호선 열차의 창문에 비친 내 육신처럼.

나는 이제 열차에 탄다. 열차에 발을 딛고 서면, 정거장이 옆으로 움직인다. 그것은 방금까지 내가 서 있던 땅이 나를 떠나가는 듯한 착각을 준다. 탑승의 경험이란 그런 것이고, 우리는 이 전시장에서 하나의 탑승을 제안받는다. 아직 신민경이 내게 말하는 것들이 어떤 풍경을 보여주는 것인지 선명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의 열차에 어떠한 풍경이 드러났는지 알 수 없는 이유는 이 열차가 긴 터널을 지나는 중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나는 열차에 앉아 옆으로 이동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 움직임은 마지막에는 하나의 질문으로 도착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내리는 걸까?”

이 글과 작품 사이가 넓으니, 발 빠짐에 주의하기를 바란다.

정거장에서, 임다울

1) 가마에서 벽돌 따위를 구워 만들음. [표준국어대사전]

2) 골회(骨灰)와 자토(磁土)를 섞어 구운 영국 자기. [표준국어대사전]